



어스아워 EARTH HOUR

2017년 3월25일(토)

8:30PM~9:30PM



글로벌 최대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어스아워

어스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끄기)의 첫 발걸음

WWF(세계자연기금)가 주최하여 지난 2007년 3월 31일 8시 30분 호주 시드니에서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1년에 1시간 동안만이라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리 지구를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시드니 지역의 220만여 가정과 기업이 참여했던 어스아워



는 1년에 1시간 전등 끄기를 실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축제

2016년에는 전 세계 178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파리 에펠탑,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서울 송례문과 흥인지문을 비롯한 12,700여 곳의 랜드마크가 한 시간 동안 소등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JTBC 비정상회담의 멤버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코엑스몰을 소등하고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1번째 어스아워 캠페인에 함께해요!

2017년 3월 25일 8시 30분, 온 지구를 밝히던 불이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올해에도 지구에 휴식을 주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실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스아워 참여 약속 페이지(earthhourkorea.org)에서 여러분이 캠페인에 참여 장소를 공유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어스아워를 함께하세요!



1.6 vs 3.3

WWF가 발간한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지구 1.6개가 생산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생태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세계평균보다도 많은 무려 3.3개의 지구 분량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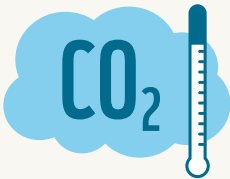


WWF-Korea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 기관인 WWF의 한국본부입니다. WWF는 1961년에 설립된 이래로 현재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된 한국본부는 기후변화/에너지와 해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 자연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ARTH HOUR 2017 - Everyday Earth Hour !

전등을 끄면 멸종 위기 동물이 야광 스티커로 살아난다?!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위해 '전등을 끄고 생명의 빛을 켜주세요!' WWF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어스아워 2017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 '함께 해요, 어스아워' 스티커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참가방법은 WWF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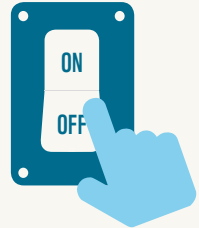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에 어스아워가 중요한 이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서 190여 개 국가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2°C보다 작게 제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각 국가와 기업은 이 파리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이행시에는 지구 평균 기온은 4~6°C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협정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기후 조건이 바뀌면 생물종에 필수적인 환경 조건이 변하고 일부 생물종은 적응하지 못해 멸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려 이와 공존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등이 꺼진 한 시간, 우리의 생각을 켜는 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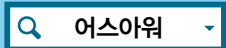
1시간 동안 "십시일반" 불을 끄는 일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평소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2%를 차지하는 에너지를 보다 덜 사용하고 나아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1시간 전등을 끄는 작은 참여로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Together Possible! 어디에서든 참여할 수 있고, 지구와 환경을 위한 메시지를 더 빠르고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디지털로 더 쉽고 더 빠르게 #어스아워

어스아워 캠페인은 참여자 모두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과 주변의 모습들을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어스아워 함께 공유해 주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 어스아워와 WWF(세계자연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와 SNS를 참고해주세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웹사이트 wwfkorea.or.kr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wwfkorea
- 캠페인 문의: 02-722-1601 info@wwfkorea.or.kr



숫자로 보는 Earth Hour

178

2016년 전 세계 178개국에서 어스아워에 참여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C

파리 기후 회의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21세기 말까지 섭씨 2도 이하(산업화 이전 대비)로 낮추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2%는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2007

Earth Hour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를 걱정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시민들 220만여명이 처음 시작한 행사이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60M

2016년 어스아워는 온라인에서만 2억 6천명이 참여한 디지털 캠페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계자연기금

WWF의 사명

지구의 자연 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wwfkorea.or.kr